



# 다시 돌려받는 작은 실천, 탄소포인트제 및 에코마일리지

취재 | 정책개발팀 김 기 영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 저탄소 생활 실천의 시작!



### 에코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란 에코(eco, 친환경)와 마일리지(mileage, 쌓는다)의 합성어로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로 가정과 학교, 기업에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들은 실생활의 편리성을 위해 많은 편리한 제품을 개발해왔다. 그 결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과학의 세상이 펼쳐졌고, 스마트한 삶에서 많은 이점을 누리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삶과 바꾼 것이 있다면 바로 자연, 즉 생태계이다. 예전부터 항상 문제로 거론되었던 지구온난화는 우리도 모르게 인간의 편의성과 맞바뀌었고, 최근 여객선 침몰로 인한 전 세계적 슬픔을 겪은 적이 있다. 쉽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현 상태의 환경을 그대로 새삼과 같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심각성을 깨우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실천인 탄소포인트제와 에코마일리지(Eco mileage)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포함) 사용량을 수집 및 관리하고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금월 사용량을 수집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게 된다. 이때,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개인에게 저탄소 활동에 재투자 되는 인센티브를

【그린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그린카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10%이상 절감시 연간 최대 70,000원 상당 포인트 지급

② 에너지 절감, 대중교통 이용, 그린카드 가맹점 이용, 녹색매장 친환경 제품 구매

③ 국립공원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기념품, 기부, 교통카드, 상장, 기념패,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캐시백 포인트, 지방세 납부

【그림 1】 탄소포인트제의 여러가지 인센티브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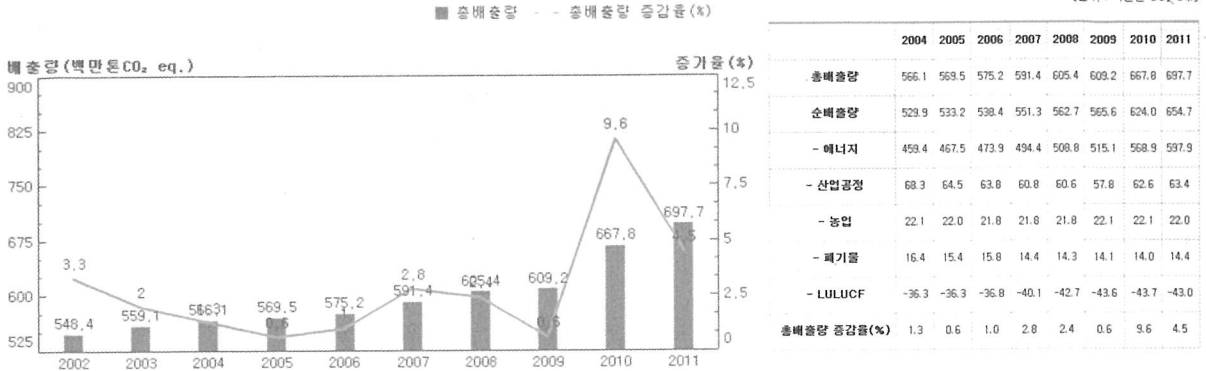
### 탄소포인트, 그것이 알고 싶다.

환경부에서 주관한 탄소포인트제는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역단위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으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가입하면 매달 전기,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제조사	상품명	제고	상품가격	상품링크	신청하기
이티모바일	티머니그린카드 충전권	60	50,000	<a href="http://www.t-money.co.kr">http://www.t-money.co.kr</a>	신청하기
주방참가자	참참가자 포인트(요리북자를 구매서비스)	27	50,000	<a href="http://ecomileage.hjga.co.kr">http://ecomileage.hjga.co.kr</a>	신청하기
시장갈매기통닭	천물시장 온누리상품권	17	50,000	<a href="http://www.onnuri.co.kr">http://www.onnuri.co.kr</a>	신청하기
이치스	이치스관리비	160	50,000		신청하기
카드포인트	그린카드 포인트	223	50,000		신청하기

【그림 2】 에코마일리지의 여러가지 인센티브 상품

[단위 : 백만톤 CO<sub>2</sub> eq.]



[그림 3] 국내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프 및 통계표

연2회 제공하게 되는데, 이 인센티브의 보상으로 그린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받지 않는 경우교통카드 충전권과 아파트 관리비 등 여러 가지 이벤트 혜택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불하여 통장으로 받는 방법 또한 있다(그림 1).

**서울시민은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 No!**

탄소포인트제에서 에너지 절감에 참여하여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젝트를 서울시민은 참여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같은 프로젝트로서 서울시청에서 주관하는 “에코마일리지”가 있다. 참여방법은 탄소포인트제와 같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매달 전기,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사용량을 수집 및 관리하고 수집된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개인에게 저탄소 활동에 재투자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각 프로젝트의 도입배경**

각 프로젝트의 도입배경으로는 201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를 기록하였고, 주거면적 확대 및 건축물의 고층화, 가전제품의 대형화의 경향에 의해 가정, 상업 등 건물 분야가 전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게 되었고, 생활속의 에너지절약 실천이 긴요해졌기 때문에 소수절약 및 전기절약,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사용, 재활용 등 시의 정책·제도와

시민의 에너지 절약실천이 어우러지는 탄소포인트제와 에코마일리지 도입되었다.

**탄소포인트제 및 에코마일리지, 왜 필요할까?**

지구를 덮고 있는 기체 중에서 지구의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체를 온실가스라 한다. 이 온실 가스를 이루는 것 중 이상기온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이며, 인간의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CO<sub>2</sub>)의 급격한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어, 빙하의 해빙으로 인한 수면상승과 이상기온 현상 발생 등으로 지구 곳곳에서 대형 자연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즉, 가뭄과 홍수 등의 대규모 자연재난이 증가 되며, 특히 해수면이 상승 시 가뭄 및 물 부족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이 심각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온대성 식생 외에 아열대성 식생이 증가하는 등 생태계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대의 변화로 전염성 질병체의 분포변화와 전염병 이동의 증가로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거듭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인 지구온난화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작은 실천인 탄소포인트제 및 에코마일리지를 통하여 전기·수도·가스를 아껴 쓰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 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니 친환경에 이바지하며, 인센티브 제공으로 상품이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